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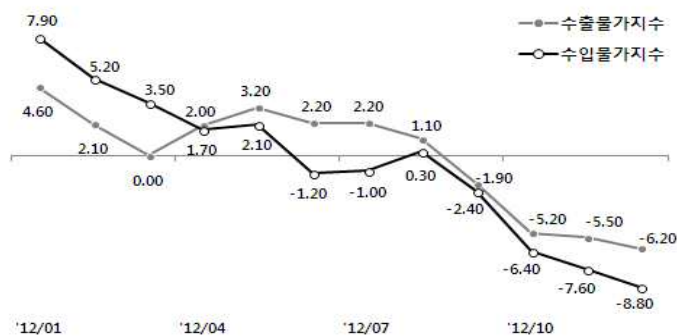


수출입물가지수 하락세 지속

채원영 연구원

- 수출입물가지수 모두 2012년 9월부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12월에도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하락하였음.
 - 2012년 12월 수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6.2% 하락하였음.
 - 환율 변동효과를 제거한 계약통화 기준 수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.2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.
 - 품목별로는 농림수산물이 전년동월대비 17.9% 하락하였으며 공산품이 1차 금속제품, 컴퓨터·영상음향·통신장비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6.1% 하락하였음.
 - 수입물가지수는 유가 및 원화강세의 영향¹⁾으로 전년동월대비 8.8% 하락하였음.
 -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.4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.
 - 품목별로는 원자재의 경우 광산품이 10.7% 하락함에 따라 10.0% 하락하였고, 중간재, 자본재, 소비재는 각각 8.3%, 7.9%, 4.7% 하락하였음.

〈그림 1〉 수출입물가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



자료: 한국은행.

- 수출물가가 4개월째 하락 흐름을 이어가면서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.

(2012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, 한국은행, 1/10)

1) 두바이유가(월평균, 달러/bbl): 2011. 11월 107.91 → 2012. 12월 106.35(전년동기대비 1.4% 하락)
 원/달러 평균환율: 2011. 12월 1,147.5 → 2012. 12월 1,077.0(전년동기대비 6.1% 절상)